

칭화과기원 "해외로" (매일경제 2005.05.25)

칭화과기원 "해외로"



◆중국경제의 견인차 / 칭화대 ③◆

칭화대 과학기술원과 평생교육원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국제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칭화대는 1944 년에 설립된 '칭화과기원' 성공에 자신감을 갖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아예 신규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에 자리잡은 칭화과기원을 모델로 삼아 2006 년까지 산시 장시 하이저우 창핑 허베이 쿤산 등 중국 전역에 2026 만평 규모 산업단지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 첨단 정보기술 (IT)과 문화산업을 결합한 150 만평 규모 '화칭스룽(華淸石龍) 문화단지'를 베이징 외곽에 건설하게 된다.

칭화대는 한 발 더 나아가 칭화과기원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있다.

대학 측은 칭화과기원을 국제화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등지에 국외 분원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 대상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고양시 일산 국제전시장 부대지원시설 차이나타운 내 차이니스 가든에

들어서는 '칭화의 창'에는 칭화과기원 분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원도 들어선다.

현재 막바지 설계단계로 오는 10 월 착공해 2007 년 말 지상 8 층(건축 연면적 1 만 4760 m²)짜리 초현대식 건물이 준공될 예정이다.

총 150 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는 칭화기업집단도 주주로 참여했다.

양필승 서울차이나타운 대표는 "광대한 중국시장과 한국 IT 테스트 베드 능력 이 결합하면 세계 IT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한국과 중국 이 손을 잡으니까 미국 일본 등 우수 업체와 미국 대학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칭화대는 미국에서 연구개발(R&D)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칭화과기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이미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국제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5.05.24 16:45 입력

http://inews.mk.co.kr/CMS/emag/emSec/emSecCa/6656233_4075.php